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KIA Tigers PRO BASEBALL CLUB

강 테이블 세터로 불펜 승부사로 박

이들이 호랑이의 미래다

강한울(22)

키·몸무게	181㎝·65㎏
포지션	내야수(우투좌타)
출신교	안산공고-원광대

힘 부족하지만 주력 최고 팀 보탬되는 선수될 것

"이용규 선배의 센스를 닮아서 팀이 원하고 팬들이 원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2차 지명회의에서 가장 먼저 KIA의 선택을 받은 원광대 내야수 강한울은 '빠르다'로 얘기되는 선수다. 스카우트의 평가는 물론 본인이 우선 꼽는 능력이 주루다.

181㎝, 65㎏의 마른 체격이지만 대신대학 최고의 주력을 가졌다. 대학 통산 타율은 0.346. 힘이 부족하지만 발 빠른 교타자다. 2루수로 주로 활동했고 유격수 수업도 받은 내야의 자원. 특히 바운드 대처 능력이 좋다.

강한울은 4년의 기다림 끝에 더 빠르고 더 정교해지면서 프로 선수가 됐다. 그것도 1라운드 선수라는 영예와 함께. 안산공고 3학년 때는 지명회의 날짜도 모르고 지나갔었다. 지명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한울은 "3학년 때 인하대와 연습경기를 하다 데드볼에 맞아서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후반기에 겨우 몇 경기만 뛰어서 지명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1라운드에서 뽑히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부상으로 뒤늦게 두드리게 된 프로의 무대. 지난 4년은 본인에게 중요한 시간이 됐다.

강한울은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마르기는 했지만 신체적 조건이 늘었다. 힘도 더 붙고 달리기도 더 빨라졌다.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강한울이 말하는 강한울의 스타일은 이용규(KIA)의 타격, 손시헌(두산)의 수비다. 물론 이들에게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만 닮고 싶은 목표다. 특히 팀 선배인 이용규는 자신의 롤모델이다.

강한울은 "안전하게 주루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필요할 때는 상대를 슬슬 괴롭히면서 뛴다. 작전도 잘 수행하는 편이다. 이용규 선배의 컨택 능력과 센스를 배우고 싶다. 볼카운트가 불리해지면 최대한 공을 많이 보면서 하려고 한다"며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 힘을 키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목표는 필요한 선수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살린 테이블 세터가 그가 노리는 자리다.

"테이블 세터로 부지런히 뛰고 작전을 수행하고 싶다. 팀에 보탬이 되는 게 나의 목표다. 꼭 필요한 선수, 없으면 안 되는 선수. 팀이 원하고 팬들이 원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목표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상옥(22)

키·몸무게	185㎝·81㎏
포지션	투수(우투우타)
출신교	청원고-연세대

무등기가 배출한 스타 경기운영 능력 뛰어나

"윤석민 선배의 변화구 능력을 배워 불펜의 승부사가 되고 싶습니다."

연세대 우완 박상옥은 신인 2차 지명회의에서 KIA의 두 번째 선택을 받으면서 광주와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박상옥은 청원고 시절인 2008년 제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팀을 19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팀으로 만들며 대회 MVP를 거머쥐었다. 겁없던 2학년이었다.

하지만 아쉽게 1년 뒤 프로 지명은 받지 못했다. 대학에 진학해 절치부심 자신을 가다듬은 박상옥은 이번에는 2라운드 선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절망과 희망의 시간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어머니는 두 번을 우셨다.

박상옥은 "지명만 받았으면 했는데 이렇게 상위 지명을 받게 될지 몰랐다. 너무 좋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명을 받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 엄마가 많이 우셨다. 이번에는 기분이 좋으셔서 우셨다. 전화를 드렸는데 받자마자 우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등기는 자신의 인연이자 기회다.

박상옥은 "KIA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켜봤다고 하셨다. 무등기 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내게 기회였던 것 같다. 특별한 인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패 속에 차곡차곡 쌓은 경험은 큰 자산이다. 일찌감치 청원고 에이스로 활약한 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을 뛴 만큼 경기 운영 능력에 자신이 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6㎞. 커브, 슬라이더가 주무기이고 서클체인지업도 구사한다. 올 겨울에는 웨이트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몸과 힘을 불렸다.

박상옥이 가장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선배는 무등기가 배출한 또 다른 스타 윤석민이다.

박상옥은 "고등학교 때는 직구 위주로만 승부를 했는데 윤석민 선배의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연구했다.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던지니까 그립도 보고 어디에 타점을 놓는지도 살펴보고, 만나보고 싶다"고 웃었다.

몸쪽 승부가 편하다는 강심장 박상옥의 목표는 불펜의 해결사다.

박상옥은 "바깥 승부보다 몸쪽 던지는 게 더 편하다. 빗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과감하게 승부를 하는 편인데 몸쪽 승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변화구를 더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며 "KIA가 불펜이 약하니까 중간에서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선발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더 재미있다. 내 한계치까지 도전해서 팀의 불펜 핵심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7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제26회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발대식에서 김종업 대표팀 단장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만 타이중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미·쿠바 등 강호 꺾고 6번째 우승하고 오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 결단식

제26회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에서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결단식에서 필승 의지를 되새겼다.

대한야구협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이병석 회장(국회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열어 28일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대만 타이중의 인터컨티넨털구장, 타이중구장, 도류구장 등 세 곳에서 열린다.

12개 참가국은 2개조로 나뉘어 조별 1라운드(라운드로빈)를 치르고, 조별 상위 세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한다. 1라운드를 통과한 6개 나라가 2라운드에서 격돌하고, 1라운드 2경기 성적과 2라운드 3경기 성적을 합산해 성적이 좋은 두 팀이 결승에 오른다.

미국, 콜롬비아, 호주, 쿠바, 이탈리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된 한국은 30일 오후 1시 30분 인터컨티넨털 구장에서 이탈리아와 1차전을 벌인다.

차명진(효천고·KIA)과 정기훈(광주일고·두산)을 비롯해 한주성(덕수고·두산), 유희운(북일고)·박세웅(경북고·이상 KT), 임지섭(제주고·LG), 이수민(상원고·삼성), 안규현(덕수고·삼성), 황영국(청주고·한화) 등 2014년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의 연고 1차 지명 또는 우선지명, 2차 지명 1순위로 지명된 선수들로 이뤄진 마운드가 한국대표팀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1981년, 1994년, 2000년, 2006년, 2008년에 이어 한국의 6번째 우승을 인도할 정윤진(덕수고) 대표팀 감독은 "과감한 주루 플레이와 마운드의 높이를 앞세워 미국, 쿠바 등 강호를 넘어 정상에 도전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비상구 찾나 손흥민 등 유럽파 호출

기성용·박주영은 제외… 내달 아이티·크로아티아와 평가전

지난 2월 3일(현지시간) 영국 말로우 비스햄 애비 내셔널 스포츠센터에서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을 앞두고 열린 현지적응훈련에서 구자철(왼쪽부터), 지동원, 손흥민, 김보경, 이청용이 함께 달리며 몸을 푸는 모습.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이 홍명보호(號)에 처음 발탁됐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비난하고 선수단 파벌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성용(스완지시티)은 탈락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2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아이티(9월 6일·인천 축구전용구장) 및 크로아티아(9월 10일·전주 월드컵경기장) 평가전에 나설 25명의 태극전사를 발표했다.

선수들은 9월 2일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돼 훈련을 시작한다. 당초 국내 평가전은 규정에 따라 경기 이틀 전 소집이지만 축구협회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를 얻어 4일간의 훈련기간을 확보했다.

◇손흥민 등 유럽파 대거 발탁=이번 명단에는 유럽파 선수들이 대부분 발탁됐지만 이적설이 떠도는 기성용과 박주영(아스널)은 끝내 '홍심(心)'을 얻지 못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하는 '골잡이' 손흥민이 홍명보호 출항 이후 처음 호출을 받은 가운데 구자철(볼프스부르크), 지동원(선덜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이청용(볼턴) 등 유럽파 공격진이 대거 뽑혀 '다득점'과 '첫 승리'에 목마른 대표팀에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손흥민은 그동안 홍명보 감독이 이끌어온 20세 이하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에 한 번도 호출된 적이 없어 이번이 홍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을 좋은 기회다.

홍 감독도 "독일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표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은 기량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비진에는 박주호(마인츠)와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 등 젊은 유럽파 수비수 외에 '베테랑' 곽태휘(알 샤밥)를 호출한 게 눈에 띈다.

그동안 젊은 선수들을 활용해 포백(4-back) 라인을 구성한 홍 감독이 대표팀에서 잔뼈가 굵은 곽태휘를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파 선수들이 대거 합류한 가운데 K리그(12명), 일본 J리그(4명), 중국 슈퍼리그(1명) 소속 선수들도 17명이나 선발됐다.

K리그 선수 중에서는 홍정호(제주), 이용(울산), 고요한, 하대성, 윤일록(이상 FC서울), 이명주(포항), 박종우(부산), 조동건(수원), 이승기(전북), 이근호(상주), 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 등 12명이 생존했다.

◇정성용·김승규 골문 경쟁=반면 최강희호(號)에서 최전방 공격을 이끈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은 폐루 평가전에 이어 이번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또 일본에서 활약하는 황석호(히로시마),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한국영(쇼난)도 발탁됐지만 지난달 치러진 2013 동아시안컵에서 활약한 '젊은 수비수' 김진수(니가타)는 홍 감독의 재호출을 받지 못했다.

골기퍼에는 정성룡(수원)과 함께 폐루 평가전에 선발 출전해 선방을 펼친 김승규(울산)도 재신임을 받았다.

이에 따라 4-2-3-1 전술을 가동하는 홍명보 감독은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에 지동원을 세우고 구자철을 섀도 스트라이커로 배치하는 전략을 가동할 전망이다. 또 왼쪽 날개는 손흥민과 김보경이 경쟁하고 오른쪽 날개는 이청용이 자리 잡는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선발된 비유럽파 선수들도 유럽파 선수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며 "본격적인 대표팀의 생존경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기성용과 박주영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기성용은 기량이 이미 검증된 선수"라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서 선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유럽 이적시장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주영도 한국 축구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한 선수인 만큼 지금 당장 부진하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무엇보다 경기에서 뛰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이티 및 크로아티아 평가전 출전 선수 명단(25명)

▲골키퍼(GK)=정성룡(수원)·김승규(울산)·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수비수(DF)=박주호(마인츠)·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김영권(광저우)·황석호(히로시마)·홍정호(제주)·곽태휘(알 샤밥)·이용(울산)·김창수(가시와 레이솔) ▲미드필더(MF)=김보경(카디프시티)·손흥민(레버쿠젠)·이청용(볼턴)·고요한·하대성·윤일록(이상 FC서울)·이명주(포항)·한국영(쇼난)·박종우(부산) ▲공격수(FW)=구자철(볼프스부르크)·지동원(선덜랜드)·조동건(수원)·이승기(전북)·이근호(상주) /연합뉴스